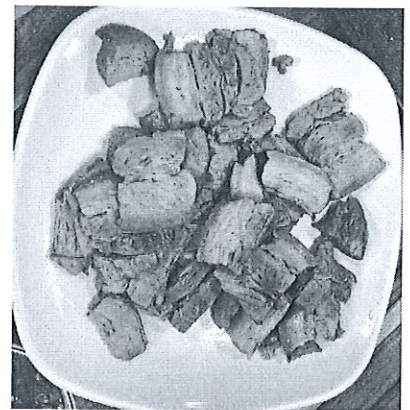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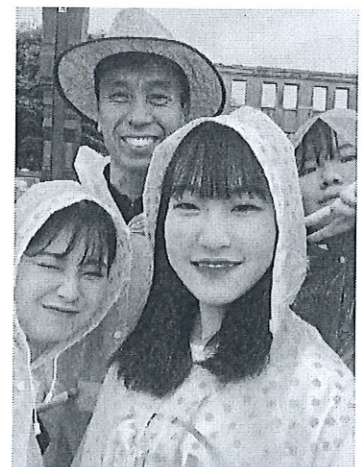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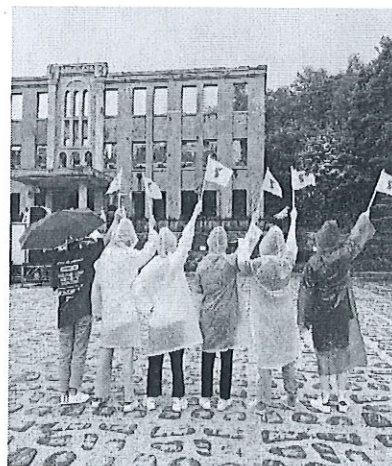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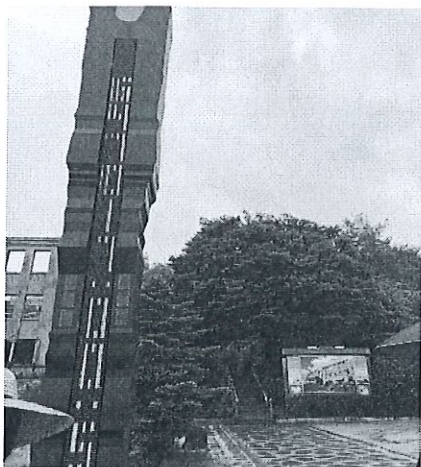
# DMZ평화순례길 보고서

2121-최은지

오늘 아침은 유난히 밝아 보였다. 아침 일찍 일어나 통일에 대해 배우고자 학교로 줄린 몸을 이끌고 향했다. 어젯밤 비가 많이 몰아쳐 오늘 아침이 걱정 되었지만 하늘이 우리의 통일정신을 느꼈는지 비가 별로 오지 않았다. 그렇게 모두 모여 버스가 출발하였고, 버스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철원에 도착하였다. 철원에 도착하자마자 배를 채우기 위해 막국수와 수육을 먹었다. 사장님이 인심이 좋으셔서 막국수를 계속 주셨고, 수육도 계속 주셨다. 덕분에 더 배부르게 활동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았다. 철원에 간다면 또 먹어보고 싶었다. 그렇게 배를 채우고 우리는 또 다시 버스를 타고 철원 노동당사로 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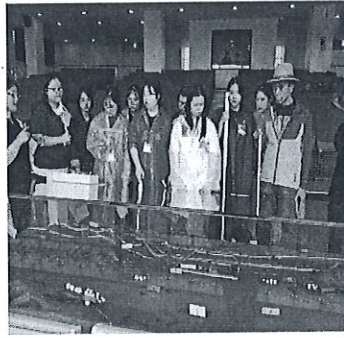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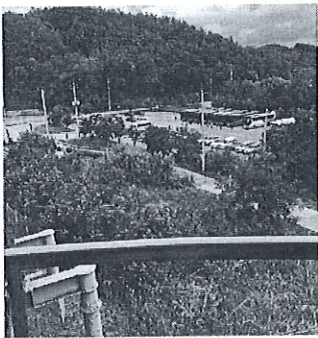


철원 노동당사에서는 국기를 들고 내려서, 강사님의 강의를 들었다. 보이는 대로 우리가 분단된지 얼마큼이 지났는지 실시간으로 보인다. 그만큼 우리가 그 시간대에 있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마음이 더 의젓해지고 생각이 많아졌다. 시간이 빨리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통일이 빨리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다. 모두 같은 생각을 하는 듯 조용해졌다. 그렇게 그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 통일 국기를 들고 사진으로 그 순간을 남겼다. 통일을 위해 무엇인가 했고, 내가 그 장소에 있었다는 점에서 잊지 못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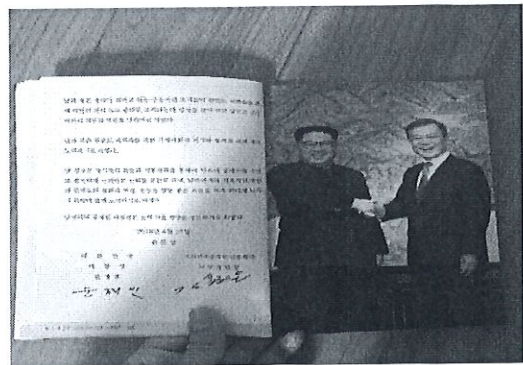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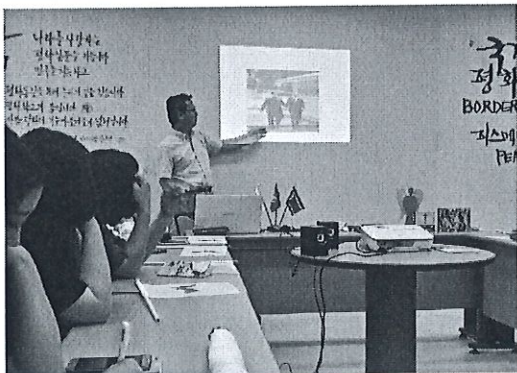




다음으로 버스를 타고 평화 전망대를 향했다. 평화 전망대에서는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 평화 전망대 건물로 들어가 강의를 들었다. 그곳에는 통유리로 되어있어 밖을 훤히 볼 수 있었고, 넓은 평야와 밭이 깔려있었다.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만 넘으면 북한이 바로 보일 정도로 북한과 얼마큼 가까이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 망원경을 통해 더 가까이 보고자 체험을 했다. 망원경을 통해 본 풍경은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살면서 북한과 이렇게 가까워 본 적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또 모형으로도 봤었는데 통일에 대해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 같았다. 설레는 기분이었다. 야외전망대에서는 군인들도 보았다. 괜히 고마운 마음도 들었고, 나라를 위해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했다. 하루 빨리 통일이 된다면 '철원에 군인이 가장 많은 걸로 아는데 이러한 정서적 위험도 하루 빨리 사라질텐데'라고 생각이 들었다. 또 안에 들어가서 보니 남한과 북한에 대한 전시장도 있었다. 그곳에서도 사진 촬영을 통해 그 순간을 친구들과 함께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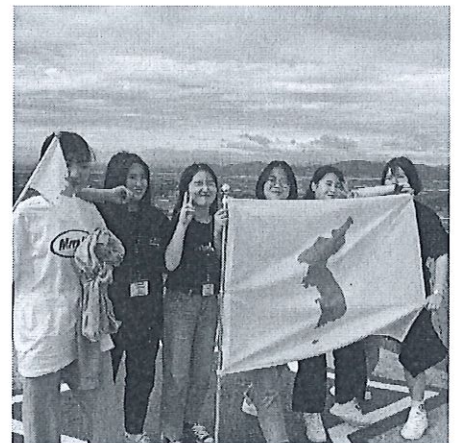


다음은 평화통일 강의를 듣기 위해 국경선 평화학교로 향했다. 그곳에선 정지석 박사님께서 우리에게 강의를 해주셨다. 최근 2018년 4월 27일에 있었던 판문점 선언에 대한 이야기와 평양방문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다.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던 판문점 선언은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는 내용을 가지고 있고, 또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남북 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 강의를 듣고 나는 그때 당시가 다시 생각이 났고, 나는 더 이상 통일이 지연 되면 안된다고 생각했다. 하루 빨리 통일이 되어 원래 같은 민족이었던 북한, 남한은 한 민족으로 빨리 통일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강의를 듣고 더 통일에 대한 의지가 올라갔던 것 같다. 또한 9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였는데 그 순간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가깝게 있으면서도 우리 국민들은 가보지 못했다. 더 이상 그런 정서적 위험감이 빨리 사라져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도 평양을 오가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마지막 코스인 우리는 소이산을 향했다. 소이산을 오를 땐 침묵을 해야 한다고 하셨다.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니 침묵을 통해 더 혼자 통일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해보고, 산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우리는 손을 서로잡고 통일에 대한 마음을 새기고 산을 하나 둘 오르기 시작했다. 물론 산 오르는게 쉽진 않았다. 힘들기도 했지만 모두 산 정상에 올랐다. 중간에 포기한다는 학생도 없었다. 그리고 걱정했던 비도 오지 않았다. 하늘에게까지도 우리의 통일 정신이 닿았나 보다. 그렇게 산 정상에 오르고 감탄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산 정상에는 맑고 푸른 하늘과 나무와 산이 보이고 밭도 보였다. 또 저 멀리서는 산이 보였고, 그 산 너머에는 북한이 있다. 차로 30분도 안가면 보일 거리였다, 마치 같은 땅에 북한과 우리가 같이 있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산 정상에 서서 계속 바라보았다. 힘든 기색도 숨긴 채 다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듯 보였다. 그리고 이 순간에서도 통일국기를 들고 사진을 찍지 않을 수가 없었다. 꼭 통일이 된다면 이 사진들을 보면서 더 이상 통일에 대한 걱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 또 이런 활동이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가 통일에 대해 노력을 했고, 직접 통일에 힘을 쏟으로써 뿌듯함을 느꼈다. 모두 표정이 밝아보였다. 빨리 통일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값진 경험이었다.



마지막 활동을 마치고, 우리를 위해 강의와 진행을 해주신 전영숙 선생님과, 정지석 박사가 얼마나 통일에 대해 노력하고 계시고, 통일을 알리고 계시는지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 분들이 강의나 진행을 할 때 통일에 대해 강의를 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계시는지 알 수 있었고, 나 또한 나중에 통일이 된다면 부끄럼 없이 내가 통일에 대해 힘 쓴 것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 통일 활동이나 통일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통일에 대해 전영숙 선생님과 정지석 박사님처럼 널리 알리고 싶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통일에 가까이 갈 것이다. 노력없이 되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또, 소이산과 평화전망대에서 북한땅을 보며 멀게만 느껴졌던 북한이 정말 가깝게 느껴졌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이 한 땅에서 숨을 쉬고 있음에 대해 알게 되었고, 남한과 북한이 아닌 한민족으로 불리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또, 통일이 된다면 백두산에 활동을 같이했던 선생님, 학생들과 같이 가고 싶다. DMZ평화순례길활동은 내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될 것이다. 나중에도 갈 기회가 생긴다면 또 가고 싶다.

